가상현실로 체험하는 불교 지옥 '화제'

〈VR〉

쿠스미 스님, 3년간 구상 끝에 개발
불교 가르침, 엔터테인먼트와 융합
죄업 따른 사후 세계 경전 근거 설명
고글착용 후 체험…염라대왕 만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켄쇼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죽고 나서 생전의 악업에 대한 벌을 받는 지옥. 이 지옥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다. 일본 요코하마시 토츠카구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인 묘호지(妙法寺). 이곳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불교의 사후세계와 연결된 '지옥체험회'가 열려 화제다. 6월 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가상현실로 바라보는 불교의 지옥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월 1회 이상 묘호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옥체험회'에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지옥을 구상한 묘호지의 주지 쿠스미 켄쇼 스님은 구상부터 개발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엔터테인먼트와 융합시키면서 소개하고 싶어 가상현실을 만들었다"고 개발의의를 설명했다.

지옥체험회는 먼저 법당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스님이 대형모니터를 이용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묘호지 측은 "1회에 15인을 정원으로 참가자를 받고 있다. 보통 정원을 가득 채워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다"며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전했다.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을 설명하고 현세에서 지은 죄업에 따라 어느 지옥에 가는지를 경전에서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장 죄가 가벼운 사람이 떨어지는 '등활지옥'만 해도 죄인은 약 1조6653억 1250만년, 죄가 가장 무거운 '무간지옥'은 349경 2413조 4400억년 동안 지옥의 나찰들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같이 지옥의 개요에 대한 약 10분간의 해설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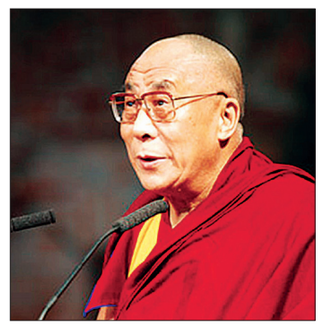
해설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수의에서 모티프를 딴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서 사후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첫장면은 저승의 경계인 삼도천(三途川)을 배로 건너는 모습이다. 이때 참가자는 목을 움직여 주위를 360도로 바라볼 수 있다. 음성으로는 함께 강을 건너는 영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며 현장감을 자아낸다.

강을 건너면 화면 가득히 염라대왕이 등장한다. 참가자의 앞에 있던 영가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비추고서, 염라대왕은 참가자의 눈앞에 나타나 "다음은 그대다. 그대는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순간 옆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앞으로 가게 될 세계들을 안내한다. 지장보살은 수라, 축생, 아귀도의 순으로 참가자들을 안내하며 각 세계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담담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지옥도에서는 지옥의 나찰들이 죄인들에게 가시나 창칼로 고통을 주는 광경이 펼쳐진다. 지장보살은 지옥도에서 "삼독심에 마음이 지배된 과보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서 다시 염라대왕이 나타나 "그대는 어떻게 살았는가?"하고 묻는 것으로 가상현실 지옥체험이 끝난다.

지옥체험을 경험한 한 참가자는 "현실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평소의 삶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염라대왕의 '그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울림이 있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이었다"고 감상을 남겼다. 켄쇼 스님은 "우리의 마음속엔 부처도 있고 지옥도 있다. 어느 것을 택하는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현실 지옥체험은 묘호지에서만 진행중이며 향후 타 사찰에서의 시범을 비롯, 다양한 불교 이벤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 인도 열차 참사에 애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지원금 기부도



288명(7일 기준)이 사망한 인도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애도를 표했다.

6월 5일(현지시간)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월 3일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전날 오디샤주 발라소레(Balasore)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해 "부상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는 "나는 과거 오디샤주를 여러 번 방문했고, 오디샤주 주민들을 만난 것은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주정부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이 비극적인 사고를 수습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등에게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의 발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인도에 설립된 달라이라마 신탁(The Dalai Lama Trust)이 이번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을 기부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앞서 지난 2일 오디샤주에서는 '21세기 인도 최악의 참사'라고 불린 3중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리던 한 여객열차가 주차돼있던 화물열차에 부딪히면서 탈선했다. 이후 같은 시간 다른 선로에서 이동하던 또 다른 여객열차와도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288명이다. 이 가운에 시신 205구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83구의 신원은 아직 미확인 상태다. 부상자수는 11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1981년엔 비하르주에서 다리를 건너던 열차가 탈선해 강물로 떨어지면서 800명 이상이 숨졌고, 1995년에는 뉴델리 인근에서 358명이 숨진 인도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신장상, 500여 년 만에 '환지본처'

474년 전 조성…고미술 경매서 발견
지역 고미술상 인수…진고지에 반환

일본 큐슈섬의 동북부였던 분고(豊後) 지역에서 조성되어 어느샌가 유출되었던 신장상이 인터넷 고미술 경매를 계기로 본래 봉안됐던 지역을 귀향했다. 6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우여곡절 끝에 귀향한 신장상에 대해 보도했다.

현대의 오이타현에 해당하는 과거 분고 지역에 복수로 존재했다고 전하는 진고지(神護寺). 현재는 단 1개소만이 그 사명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오이타(大分)시에 소재한 진고지 측에 타 현의 미술계 인사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는 진고지의 것으로 보이는 신장상이 인터넷 옥션에 출품되어 있다는 것. 사찰측은 제보를 받은 즉시 확인에 나섰다.

진고지의 주지 호쥬 노리타카 스님은 "신장상의 좌대 뒷면을 촬영한 사진 속에 '분고 오나와군 다카다무라 진고지'라는 묵서가 있었다. 다카다무라는 현재 사찰이 소재한 인근지역의 옛 이름"이라며 신장상이 사찰과 인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출품된 신장상은 약사여래불을 협시하는 12신장 중 하나인 '미기라대장(迷企羅大將)'. 좌대를 포함하여 높이 81cm, 무게 5kg의 목재입상으로 몸 전체에 옻칠이 올라가 있어 큰 훼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붉은색으로 채색한 흔적도 남아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먹으로 추정되는 안료가 칠해져 흑색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는 옥안(玉眼)이라 불리는 수정제 눈동자가 상감되어 있어 더욱 생생한 상호를 표현하고 있다.

신장상의 좌대 안쪽에 사찰의 이름과 함께 1549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먹으로 쓰여 있어 조성시기도 가늠할 수 있다. 진고지 측은 "본 사찰은 1527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 신장상의 묵서가 정확하다면 이 상은 사찰이 창건되고 나서 조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신장상은 히로시마에 소재한 고미술 전문 회사에 낙찰됐으나 주지스님의 연락과 설득 끝에 진고지 측에서 재구입하여 반환이 결정됐다. 회사 측은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예경의 대상인 신장상이 원래 봉안돼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반환의 계기를 밝혔다.


돌아온 신장상을 설명하는 호쥬 스님. 사진출처=오이타 신문

한편 현재 진고지의 본존은 아미타여래로 약사여래와는 관계가 없고, 사찰에 남은 자료에서도 12신장이나 약사여래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또 묵서에 쓰인 오나와군의 경우 현재 사찰 소재지의 인근지역명이나 해당 지역에는 다른 진고지라는 사찰이 현존하지 않는다. 호쥬 스님은 "과거 분고 지역에 진고지라는 사찰이 복수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이 진고지와 이 신장상이 직접적인 인연이 없을지라도, 본래 봉안됐던 지역에서 해당 사찰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해 불상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불상을 환수한 의의를 전했다. 시의 문화재위원회 역시 "과거 시내에 또다른 진고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신장상이 현존하는 진고지의 것이었는지도 불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호쥬 스님은"메이지 시대에는 불교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 많은 불상과 사찰이 파괴되었다. 이 신장상 역시 그런 광풍에 휩쓸린 것 아닌가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온 신장상의 모습을 지역민 모두가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신장상은 보호케이스에 안치, 진고지 본당에서 대중에게 공개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승가위원장 '바머 사야도' 입적

6월 4~6일 국가추모의식 봉행



미얀마 국가승가마하나야카위원장 바머 사야도(Bhamo Sayadaw)가 5월 25일 세랍 94세, 법랍 74세로 만달레이에 있는 바머 수도원에서 열반에 들었다. 미얀마 종교성은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만달레이 공항에 특설식장을 설치하고 국가 추모의식을 봉행했다. 약 20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6월 6일 보도된 디지털 저널 기사에 따르면 크와 흘렝(Kyaw Hlaing) 종교성 사무국장은 "바머 사야도의 제자들과 승가중앙실무위원회 사야도, 지역승가나야카위원회 사야도들이 협력하여 마지막 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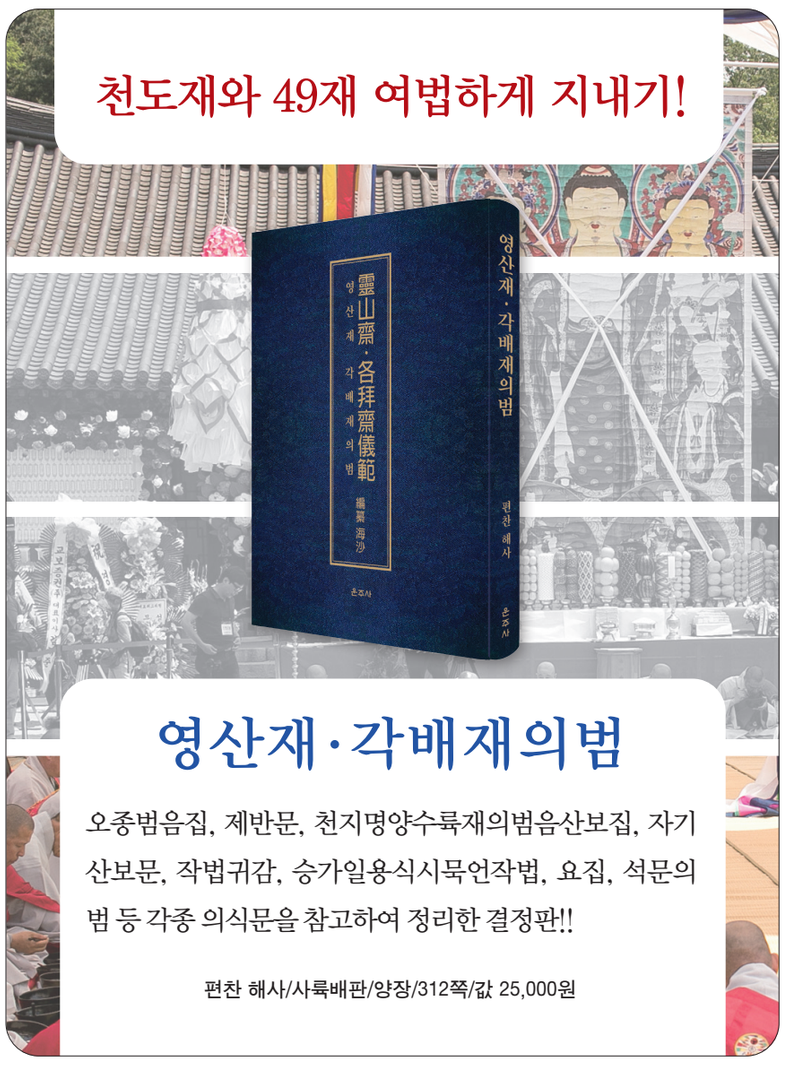
바머 사야도는 만달레이 지역의 야베 마을에서 태어나 1942년 6월 29일 사미계에 서품되었고, 1949년 2월 7일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됐다. 2010년 7월부터 우리로 치면 종정에 해당되는 미얀마 국가 승가마하나야카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바머 사야도는 파리야티 사사나 대학 관리 중앙위원회, 양곤대학 등에서 다양한 명예 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 후학 양성에 앞장서 사야도 제자들은 미얀마 삼장 코비다(Tipitaka-Kovidha) 시험에 대거 합격했다. 이 승려 시험은 1948년 이후 미얀마에서 매년 열리는 최고 수준의 승려 시험이다.

디지털 저널은 와키 유물박물관 원장인 테오 추 관(Teo Choo Guan) 박사의 추모 메시지도 함께 소개했다. 테오 추 관 박사는 바머 사야도의 지도 아래 단기 승려과정을 성료한 바 있다. 테오 박사는 "사야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때 아버지를 만난 듯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다. 그 덕분에 삶이 밝아지고 수행을 심화하고 연민과 지혜를 계발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